

광주 소비자물가 5년새 16% 올랐다…신선식품 37% 껑충

호남통계청 분석…분기 평균 0.6% ↑

채소 56%·과일 36% 순으로 많이 올라

국제 유가 영향 경유·전기 가스 요금도 ↑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소비자물가가 16% 오르고 신선식품 상승률이 37%까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4년) 광주시 소비자물가 변화'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2019년 1분기에서 2024년 4분기까지 24분기 동안 15.9%, 분기 평균 0.6% 각각 상승했다.

이는 2020년 4분기 이후부터 지속된 고유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미국금리 인상 정책 등 고화물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체감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 지수는 18.2% 상승했으며 분기 평균 0.7%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식품으로 28%, 분기 평균 1.1% 상승했다. 식품 이외는 같은 기간 13.0%, 0.5%가 각각 올랐다.

식품 이외 주요 상승 품목으로는 5년간 경유 7.54%, 섬유유연제 44.8%, 휘발유 41.7%, 전기료 3.28%, 삼푸 30.8%, 보험서비스로 29.7%, 도시가

스 28.5% 등 순으로 크게 올랐다.

특히 식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105.8%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승세는 그치지 않았다. 2022년 4분기부터 2024년 4분기 기간에도 119.8%이라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 장바구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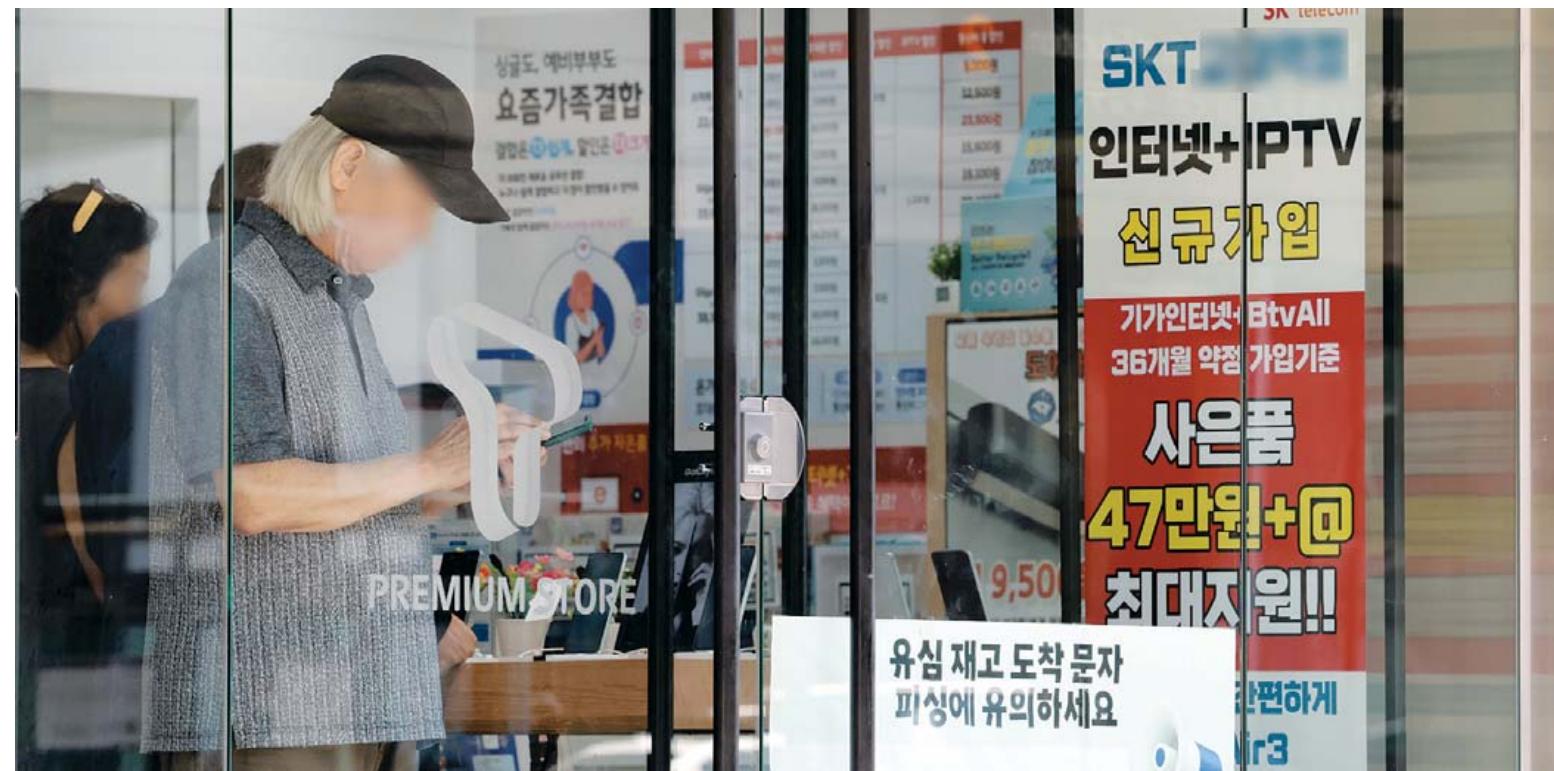
소비자물가 중 신선식품은 분기 평균 1.4% 상승하는 등 36.5% 치솟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신선식품 중 신선체소가 55.9%, 분기 평균 1.9% 각각 상승했으며 뒤를 이어 신선과일 36.2%·14%, 신선어가 18.0%·0.7% 순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이 같은 신선식품 물가 폭등 요인으로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이상기후와 같은 날씨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호남통계청은 분석했다.

광주 서비스 물가도 5년간 12.9% 상승했다. 가장 높게 오른 품목은 개인서비스(20.0%) 품목으로 2022년 3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대리운전이용료 45.9%, 컴퓨터수리비 45.2%, 보험서비스로 29.7%, 떡볶이 20.5%, 세차료 20.1%, 가전제품수리비 18.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안태호 기자



'해킹 사고' SKT, 오늘부터 신규 영업 전면 재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침해 사고로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

힌 23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

/연합뉴스

광주은행, 금융현장소통 톡톡자문단 간담회 개최

소비자 눈높이 맞춘 금융 애로 공유

광주은행은 23일 "지난 1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현장소통담당관, 강인근 은행연합회 차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현장소통 톡톡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현장소통반 1명,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 1명과 광주은행 고객패널인 톡톡자문단 6명을

비롯해 광주은행 임직원이 함께했으며 금융제도 및 관행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등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금융상품 비교정보 플랫폼 구축 ▲모바일·온라인 대출 과정 광고 규제 강화 ▲대출 거절 사유 통지 의무화 등 금융 관련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금융현장소통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은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고자 고객패널 제도인 '톡톡자문단'을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객중심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은술 기자



HD현대삼호, 스마트 조선소 구축 전환 '박차'

'AI로봇 현장실증 교육센터' 출범

HD현대삼호가 조선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한 전문 교육센터를 출범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최근 자동화·지능화 기술 향상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AI로봇 현장실증 교육센터'를 준공해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번 센터 건립에는 정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등 국비를 포함해 총 16억7천억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로봇 개발과 실증, 오퍼레이터 교육,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로봇 Total Solution' 통합 공간으로 다양한 협동로봇과 AI 분석 장비, 교육 설비 등을 완비해 이론과 실습 교육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AI로봇과 스마트 조선소 기술 향상을 적극 지원해 전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AI와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실증은 물론, 사내외 협력사 작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까지 수행하는 미래형 스마트 조선소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한국전력이 냉방기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한국전력은 23일 "올해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지속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

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 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

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전 관계자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 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호젓해서 좋은 신안지도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3, 8, 13, 18, 23, 28일

* 신안군내시장 : 송도수산시장, 신안젓갈타운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신안군

광고문의 : 062)650-2099

CYMK